자유로의 여행

목이 마르다. 생수 한 모금을 아껴 마시며 시리도록 차고 맑던 바이칼 호수와 눈 덮인 천산을 사모하여 그 모습을 품고 있던 파미르 고원의 천지를 그려본다. 나는 무엇을 찾아 광활한 대지 위 끝없이 뻗은 자작나무 숲을 지나 모래에 묻혀버린 실크로드까지 왔는가?

조재호
애드밸리교육원 대표

지난 여름, 한러 친선 특급 행사의 일원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후 실크로드로 돌아오는 한 달 반 여행으로 해묵은 역마살을 풀었다. 20여 년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 밖으로 돌아칠 때 얻은 고질병(?) 탓인지 갑자기 이 땅이 좁다고 느껴지면 배낭을 싸야 했다. 그렇다고 바람의 딸과 같은 전문 탐험가나 관광 안내를 업으로 하는 여행가도 아니지만 그저 나도 모를 답답증이 밖으로 내몬다.

한국에서의 휴가 대신 떠났던 한 달간의 유럽 일주 여행, 공사 수주 틈틈이 찾아간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오지 여행, 해외건설 수주 일선에서 물러나 이틀 만에 훌쩍 떠난 석 달간의 미국 배낭 여행…. 나는 비행기보다 기차를, 기차보다는 버스나 화물차를, 차보다는 걷는 것을 좋아하며 곧바로 가기보다는 되도록 둘러간다.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2시간이면 충분한 비행기를 두고, 굳이 금요일 밤을 이용하여 2박 3일 걸리는 협궤 횡단 열차를 탔으며, 가축 냄새가 배어 있는 사우디 기차로 담맘에서 리야드로 가거나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코타키나바루까지 벌목차를 타고 갔다. 10시 반 막차를 기다리기보다 걷다가 타겠다는 생각에 산속 도로를 따라 걷다가 곰으로 오인한 버스 기사가 비상등과 경적을 울려대던 태평양 연안의 레드우드 사건,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밤길을 걷다 반군의 안내로 캠프를 찾던 일 등. 만용이라고 해도 변명할 길 없지만 결코 만용이 아닌 내 안의 그 무엇이 나를 그렇게 내몬다. 이번 실크로드 여행에서도 그런 나의 기벽 때문에 여지없이 곤욕을 치렀다. 서역 남로와 서역 북로를 모두 돌아보자는 욕심으로 탔던 중고 장거리 버스가 48도가 넘는 한낮의 열기에 엔진이 녹아버렸는지 2명의 보조 기사가 연신 물을 부어가며 달래보았으나 노쇠한 나귀의 단말마 소리를 내더니 사막 공로 한가운데서 운명을 다한 것이다.

한반도의 두 배가 넘는다는 '죽음의 땅'이라는 타크라마칸 사막. 그곳의 밤은 차다. 화덕 같은 열기에 익어버린 살갗 밑은 화끈거리지만 버스 속에 준비된 솜이불을 코끝까지 덮어야 할 만큼 오한을 느끼게 한다. 눈만 내놓고 오랜만에 누워서 별을 본다. 한기 때문인지 모래바람은 가라앉고 별이 부서질 듯 초롱댄다. 너무나 빛이 무수하여 서로 섞일 만도 하건만 별의 개성은 더욱 또렷해 보인다.

목이 마르다. 생수 한 모금을 아껴 마시며 시리도록 차고 맑던 바이칼 호수와 눈 덮인 천산을 사모하여 그 모습을 품고 있던 파미르 고원의 천지를 그려본다. 나는 무엇을 찾아 광활한 대지 위 끝없이 뻗은 자작나무 숲을 지나 모래에 묻혀버린 실크로드까지 왔는가?

푸틴 대통령 궁에서의 만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 궁전에서 본 인간의 허영, 니콜라이 일가를 몰살시킨 혁명이란 이름의 정의, 보스포러스 해협과 이스탄불에서 본 피의 역사,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던 굶주린 아이의 여윈 손목, 일주일에 두 자루의 칼을 만들어 희망 없는 하루를 연명하는 카자흐 청년, 사풍의 열기 속에서 계란 한 바구니를 손에 들고 차창가를 서성이던 너무도 고운 위그루 소녀의 깊고 맑은 눈망울….

나는 지금 왜 이곳에 누워 있는가? 자유를 느끼려고? 정의를 보기 위해? 천시를 알려고? 역사를 배우기 위해? 내가 누운 이 땅은 계란 껍질보다 더 얇고 그 밑에는 수천 도의 마그마가 끓고 있다. 내가 볼 수 있는 저 많은 별들의 수십, 수백만 배의 별로도 끝자락조차 채우지 못할 만큼 우주는 넓다. 하물며 그 중 가장 작은 별에서 찰라처럼 사라지는 인간과 인간의 역사쯤이야…. 원래가 무(無)요 공(空)인 것을…. 눈이 흐려진다. 별빛도 흐려진다.

태양이 떠오른다. 사막에서는 발 밑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대지는 다시 이글거리고 그 열기에 모래가 살아 춤추기 시작한다. 솜이불을 털고 일어나니 머리맡에 말린 땅콩과 해바라기 씨 한줌이 놓여 있었다. 누굴까? 주위를 살펴보니 말 한마디, 글 한 줄 통하지 않지만 슬플 만큼 착해 보이는 여인이 보일듯 말 듯한 미소로 답한다. "그냥 드세요. 먼 길을 오셨는데."

답답증이 날 때면 나는 훌쩍 배낭을 싼다. 머물 수는 없다 해도 바람처럼 스치기만 해도 맡을 수 있는 실존의 향기가 생태적인 無와 空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기에…. CJ